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350호 [루게 제25493호] 주제105 (2016)년 12월 15일 (목요일)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전례없는 물고기대풍을 마련한 조선인민군 15호수산사업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황금해력사창조에서 인민군대가 계속 앞장서 나갈데 대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승고한 뜻을 심장마다에 새겨안고 당정책결사판별의 투쟁정신과 기풍을 높이 발휘한 인민군대안의 수산부문 일군들과 어로전사들이 12월 14일현재 년간물고기잡이계획을 170%로 넘쳐 수행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총정의 200일전투를 빛나게 장식하며 조국의 동해전역에서 높이 울려퍼진 어로전투의 승전포성은 핵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제시한 위대한 길을 따라 사회주의강대국건설의 장엄한 진군길을 다그쳐가는 천만군민에게 필승의 신심과 격판을 더해주고있다.

조선로동당 위원장 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지식경제시대와 사회주의문명국의 체모에 맞게 개건현대화되었으며 전례없는 물고기대풍을 마련한 조선인민군 15호수산사업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황병서동지, 인민무력성 제1부상인 북군상장 서흥천동지가 동행하였다.



물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이제 며칠 있으면 위대한 장군님께서 서거하신 5돐이 되는 날이라고, 못 건디게 그리워지는 장군님을 생각하느라니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날 밤 수표하신 수도시민들에 대한 물고기공급문제가 떠올라 오늘도 그 문건을 몇번이나 보고 또 보았다고, 인민군대에서 잡은 물고기를 수도시민들에게 보내 주면 우리 장군님께서 기뻐하실것만 같은 생각에 인민군대 수산기지를 찾아 왔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원수님의 심정을 알게 되면 인민군대안의 수산사업소에서 제일 크고 좋은 물고기들을 골라 보내 줄것이라고, 인민군장병들도 모두 좋아할것이라고 눈물을 머금고 말씀올리는 일군들에게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고맙다고, 자신과 마음을 합쳐주어 정말 고맙다고 거듭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수산사업소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개건현대화정형과 물고기잡이질적, 저장 및 공급실래 등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2 면 으 로 계 속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현지에서 조선인민군 제549군부대의 지휘관들과 수산사업소의 일군들이 맞이하였다.

지난해 11월 이곳 수산사업소를 찾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불과 며칠사이 수천의 물고기를 잡은 어로전사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면서 짧은 기간내에 도달해야 할 년간물고기생산목표도 제시해주시였으며 사업소를 현대적인 수산기지로 전면시킴것을 직접 밝기하시고 개건현대화공

사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일일이 물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사랑과 배려에 총정으로 보답하기 위해 산악같이 펼쳐나선 군부대와 사업소의 일군들, 종업원들, 군인건설자들의 힘찬 투쟁에 의하여 짧은 기간에 조선인민군 15호수산사업소가 로동당시대의 자랑스러운 건축물을 과시하며 멋들어지게 꾸러졌을뿐만아니라 최한한 물고기대풍을 안아왔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군부대

지휘관들과 수산사업소 일군들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시며 그동안 많은 물고기를 잡으면서도 사업소를 바다가 풍치와 어울리게 먼 후날에 가서도 손색없는 현대적인 수산기지로 전면시키느라 정말 수고들이 많았다고 치하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만선하고 귀중한 고기배에 직접 오르시여 어로공들의 손도 허물없이 잡아주시며 수고들이 많았다고, 힘들지는 않는가고, 애로되는것은 없는가고 일일이

